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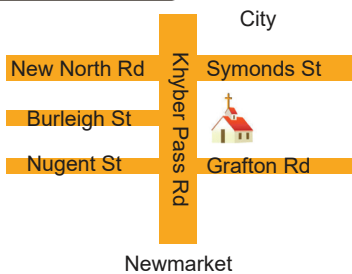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다음주일 예배 설교는 미국 아틀란타 주성령 교회 김영복목사(총회 고시위원장)가 합니다.
2. 다음 주 예배 후 권사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보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4. 성도들간의 진실한 사랑과 덕담으로 서로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갈보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5. 열두광주리 선교회를 섬겨주신 4남선교회, 교회음향 시스템 중 믹서기를 기증하신 성도들,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신 성도들, 점심 식사로 섬기는 주방봉사부원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실 성도는 자원하여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밀알급식 자원 봉사자 2명: 매월 4째 토요일 10:30AM-1:00PM
밀알 장애우를 돌볼 수 있는 봉사자: 매주 토요일 9:00AM-4:00PM
7.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8. 월요기도회가 매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동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창진
- 부목사 : 이성철

설교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30호

2016년 7월 24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95:1-3

◎찬 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대표기도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8:12-17

찬양대 찬양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이런 아버지 또 있습니까?/
이태한 목사

찬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일지

선교파송주일: 7월 3일(주일)

단기선교: 7월 5일(화)-12일(화)

금요저녁기도회: 7월 8일(금요일)

창립주일(임직): 7월 17일(주일)

공동체주관 수요예배: 7월 27일(수)

예 배 안 내: 김철재/김명춘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7월 예배봉사자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남영수 집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효설 자매

8월 3일 수요: 임병숙 권사

8월 3일 애찬: 김현주 권사

8월 7일 주일: 이기중 권사

8월 7일 청년부: 마현정 자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흥진혁 형제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박후임 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37:12-24

설교 시작되는 고난/
이태한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해가도록.
2. 예배와 교육공간의 부족이 속히 해결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선교란 이번 주는 터어키 정성은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래 글은 지난 16일, 터어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터어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성은 선교사에게 급히 안부를 묻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과 3일 후에 정성은 선교사로부터 온 회신입니다(쿠데타는 실패).

정 선생님 난리의 소식을 듣고 황급히 소식 전합니다. 당황하셨을 텐데 무탈하신지요? 인터넷으로 보면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 데 많이 놀랐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을 찾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초부터 이번주 초까지 이곳 남태평양 섬나리중 하나인 바누투에 단기투어 다녀왔고, 내일이 우리 회사 창립 17주년 잔치가 있어서 분주하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정선생님은 늘 불안한 가운데 지내고 계셔서 염려가 됩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식월에 한번 들리고 싶은데 그분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이스탄불 공항 테러도 있고 해서 주위에서는 만류를 합니다만 이세상에서 어디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두 분의 안녕을 위해 늘 두 손을 모읍니다 - 갈보리 기 성 이태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족과 이곳에 있는 우리회사 식구들 뿐아니라 모든 한인들 방문객 까지도 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여러분야에 어수선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이 쿠데타 전보다 더 활발하는 등 정국이 쿠데타 전보다 더 이상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스님과 갈보리회사도 더욱 안정되고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희 모두가 기적 가운데 살고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위험인지의 사람마다 개념차이인듯 합니다. 그저 주의 은혜로 살고, 그저 쓸데없는 위험이 경험되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난리와 난리속에 있는 이스탄불에서 기도합니다. - 정성은 올림

기 드 제목

1. 터어키 정국이 잘 안정되고 치안유지와 질서가 속히 잡히도록
2. 혼란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